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죽음의 행로' 6,500km를 가다



옛 소련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17만~20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지 올해로 80주년이다. 연합뉴스는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회'가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개최한 '극동 시베리아 실크로드 오디세이-희상열차(이하 희상열차)'에 동승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카자흐스탄 우수토베에 이르는 6천500km를 더듬어왔다.

글 · 사진 이희용 한민족뉴스부 선임기자



1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인근 철로 위로 시베리아횡단열차가 지나고 있다. 2 이창주 회장열차 집행위원장이 조감도를 가리키며 신한촌 기념비 주변의 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3 '통곡의 역' 라즈돌노예역에서 희상열차 탐사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4 고려인 4세대들이 전통검무를 선보이고 있다. 5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 고택. 6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자리에 있는 '서울거리' 표지판. 재건축 공사로 표지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7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 도착한 희상열차 탐사단이 버스로 한 시간을 달려 맨 처음 찾은 곳은 우수리스크 인근 라즈돌노예역이었다. 이곳은 연해주 일대의 고려인들을 집결시켜 시베리아횡단열차에 실어 보낸 기차역 가운데 1937년 9월 9일 550명이 중앙아시아로 처음 출발한 '통곡의 역'이다. 작은 1층 역사(驛舍) 어디에도 당시 비극을 떠올리게 할 만한 흔적이 없었지만 84명의 탐사단원은 80년 전을 회상하며 생각에 잠겼다. 기념사업회 공동대회장 함세웅 신부는 "강제이주 고려인들이 죽는 날까지 꿈에도 그러던 것은 어머니 품 같은 고향과 모국이었을 것"이라며 "이분들의 희생을 묵상하고 온전한 모국을 찾아

주기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단원들은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통일 의지를 다졌다. '고려인의 폐치카' 최재형 고택, 지금은 우수리스크의 최재형 고택은 연해주에서 손꼽히던 갑부의 집치고는 아담하다 못해 초라하게 느껴졌다. 무역업과 군수업 등으로 큰돈을 번 최재형은 고려인들에게 '폐치카'(난로란 뜻의 러시아어란 별명으로 불리며 애국계몽운동과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1920년 '4월 참변' 때 순국했다.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가 오랫동안 방치돼온 이 집을 재외동포재단 도움으로 매입해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최재형의 유품과 사료를 전시하는 기념관으로 꾸미고 있다.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서는 '1937 통곡



의 연해주 진흥문화제가 열렸다. 고려인 3세와 4세로 이뤄진 공연단이 전통검무, 부채춤, 북합주, 한국가요 독창, 합창 등을 선보였다. 2004년 기공 때부터 2010년 완공 때까지 고려인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끌어낸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이번 행사의 공동대회장으로 방명했다.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가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외에 정보화 교육과 진로 등이 이뤄진다. 1층에는 고려인 역사관이 꾸며져 있다. 우리나라 국립민속박물관이 전면 보수에 나서 지난해 12월 새로 문을 열었다. 186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해주 고려인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안내판과 함께 농기구, 생활용품, 아리랑 관련 자료, 영상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다. 이튿날 탐사단은 독립운동의 요람이던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新韓村)을 찾았다. 한때 대한국민회와 13도의군 등 망명정부와 독립군 본부가 들어서고 신문사, 학교, 교회 등이 즐비했던 곳이다. 고려인들은 처음에 도심 인근의 개

척리에 모여 살았다. 1911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시 당국은 콜레라 창궐을 핑계로 이곳을 강제 철거해 기병대 숙소로 삼고 고려인들을 북쪽으로 2km 떨어진 신한촌으로 이주시켰다. 신한촌 고려인들은 권업회를 만들어 신문을 발간하고 1914년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했다. 고려일보의 전신인 한글신문 선봉과 고려극장도 이곳에서 탄생했다. 지금 이 일대는 아파트촌으로 변했고 1999년 8월 해외한민족연구소가 세운 기념탑만이 당시 역사의 편린을 보여주고 있다. 높이 3.5m가량의 대리석 기둥 세 개는 각각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상징한다. 주변에는 조선 팔도를 의미하는 작은 돌 8개를 놓았다. 그 앞에 세운 비석 앞면에는 "민족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 이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정신이며 청사에 빛난다. 신한촌은 그 성전의 요람으로 선열들의 얼과 넋이 깃들고 한민족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곳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지난해 3월 11일 법륜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한촌 역사회복 재건위원회가 꾸려져 기념탑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팔각정과 대문 등을 세우기로 했다.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광복절에 준공식을 치를 예정이다. 러시아 현지인에게 신한촌이 고려인 집단거주지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는 기념탑에서 500m 떨어진 곳의 주소 표지판이 유일했다. '세울스카야 2A', 즉 서울 거리 2A번지라는 뜻이다. 이 표지판은 현재 러시아인이 사는 집 외벽에 붙어 있는데 현재 재건축 중이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지구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하는 열차

탐사단은 7월 24일 저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에 올랐다. 역 플랫폼에는 모스크바까지의 거리 9천288km를 뜻하는 숫자 '9288'이 새겨진 기념탑이 서 있다. 이는 어림잡아 북극에서 적도에 이르는 거리로 경부선 철도 길이의 20배가 넘는다. 총 156시간(6박7일)을 달려 56개 역을 지나고 16개의 강을 건너는 동안 7시간의 시차가 생긴다. "지구의 크기를 몸으로 직접 느끼려면 시베리아횡단 열차를 타 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헤이그 특사 이준과 이상설, 조선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소설가 이광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의 영웅 손기정 등도 이 열차에 올랐다. 고려인 강제이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죽음의 열차'로 불리기도 했다. 가까운 장래에는 유럽과 한반도를 잇는 물류 대동맥이자 문화의 실크로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베리아횡단열차 객차에는 한 평(3.3㎡)이 조금 넘는 방에 2층으로 4개의 침대가 놓여 있다. 아래층 침대는 상판을 뒤로 젖혀 소파로 쓸 수 있고 소파 바닥을 들어 올리면 트렁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복도 끝에는 비행기 기

내 화장실만 한 크기에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다. 그 앞에는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는 물통과 간식 판매대가 있다. 기차가 오래 정차하는 역 앞에는 일시적으로 노천시장이 열리기도 한다.

차창 밖으로는 가도 가도 끝이 없을 듯한 평원이 펼쳐진다. 언뜻언뜻 자작나무 숲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초록빛 초원과 푸른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이 이어질 뿐이다. 창밖 풍경의 백미는 울란우데와 이르쿠츠크 사이의 환바이칼 구간이다. 북쪽으로 바다를 방불케 하는 바이칼호의 수평선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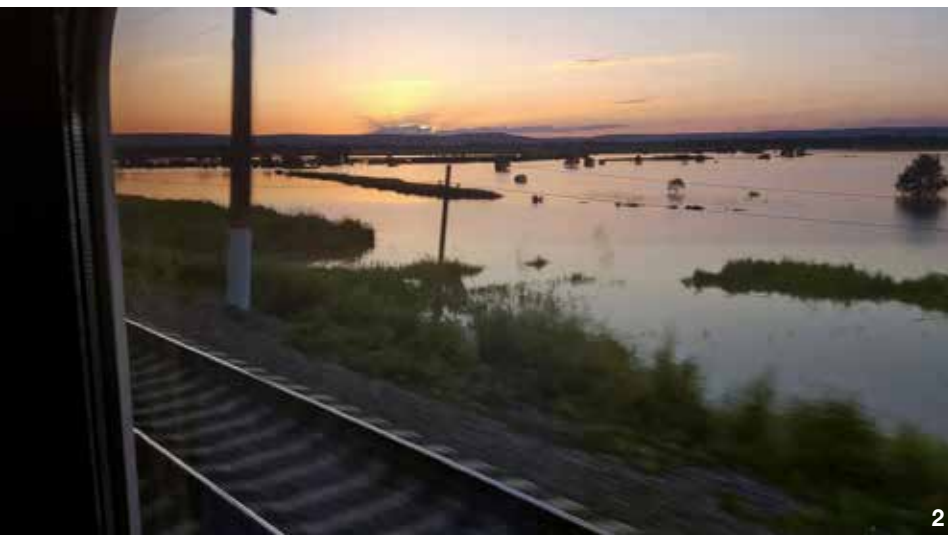
고려공산당 슬픈 역사 간직한 이르쿠츠크

탐사단은 7월 27일 오후 72시간 만에 모스크바까지 거리의 절반 지점인 이르쿠츠크역에서 내렸다. '시베리아의 파리'로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1920년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그해 9월 고려공산당 중앙총회로 개칭)가 결성된 데 이어 이듬해 고려공산당이 창당됐다.

고려공산당은 볼셰비키 당원 중심의 이르쿠츠크파와 이동휘를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 상해파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 독립군끼리 죽고 죽이는 '자유시 참변'을 일으켜 급격히 세력이 약화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자유시 참



1 시베리아횡단열차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역
2 시베리아횡단열차 차창 밖 호수 너머의 일몰 풍경
3 벨로고르스크역 노점에서 승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4 횡단열차 식당칸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회상열차 탐사단



7 강제이주 고려인들이 처음 토굴을 파고 살았던 카자흐스탄 우수투베의 비슈토베 마을에서 8월 1일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제가 열리고 있다.
8 진혼제에 참석한 강제이주 1세대 광응호(오른쪽)·천익실(왼쪽)



5 바이칼호는 물속 40m 아래까지 보일 만큼 맑다. 6 카자흐스탄 우수투베의 라힘자나 코사키르예바 학교의 학생들이 한복 차림으로 부채춤을 추며 회상열차 탐사단원들을 환영하고 있다.

변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진 데다 이념적 잣대가 더해져 독립투쟁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와 고려공산당 창립대회 자리는 현재 이르쿠츠크 국립사범대 도서관과 밤필로프극장으로 각각 쓰이고 있다. 아무런 표지판이 없어 미리 알고 가지 않으면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르쿠츠크는 세계 최대의 담수호 바이칼호와 인접해 '물의 도시'로도 불린다. 바이칼호는 넓이가 경상도 면적과 비슷한 3만1천722㎢로 세계에서 7번째지만 깊이(최고 1천64m)는 으뜸이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 오대호의 수량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인근 부족들의 풍습과 언어가 한민족과 유사한 점이 많아 바이칼호는 '민족의 시원(始源)'으로 꼽힌다. 탐사단은 28일 바이칼호가 내려다보이는 리스트비안카의 체르스키전망대에서 평화문화제를 개최했다.

"하나의 민족이기에 나눠서 안 돼"

이르쿠츠크역에서 다시 시베리아횡단열차에 오른 탐사단은 30시간을 달린 뒤 러시아의 세 번째 도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카자흐스탄 열차로 갈아타고 33시간 만인 8월 1일 새벽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첫발을 디딘 카자흐스탄 우수투베역에 내렸다. 6천500km의 열차 대장정이 9일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탐사단은 이날 오전 1938년 고려인이 세운 학

교에 들른 뒤 오후 고려인들의 첫 정착지인 바슈토베 마을을 찾았다. 2012년 카자흐고려인 협회가 세운 기념비에는 "이곳은 원동(극동)에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라고 적혀 있다. 주변은 공동묘지로 변했고 군데군데 토굴을 판 흔적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 기념비 앞에서 80년 전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제가 열렸다. 광주고려인마을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2.5세 김블라디미르 시인은 "내 민족에게 있었던 비극을 잊어서도 안 되고 되풀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하여 회상열차는 후세에게 다짐하는 서약열차가 됩니다. 하나의 민족이기에 나눠서는 안 됩니다"라며 헌시를 낭송했다.

강제이주를 경험한 95세 광응호 씨와 92세 천익실 씨의 증언 순서도 마련됐다. 광 씨는 "늦가을에 도착해 토굴을 짓고 겨울을 났는데 봄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서 "카자흐 사람들이 먹을 것과 옷을 주는 등 많이 도와줬다"고 회고했다. 천 씨는 "열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면 역에 설 때마다 소련 경찰들이 시체를 버렸다"고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가 "모국에서 온 형제자매들을 보니 정말 반갑고 기분이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85년 역사 자랑하는 고려극장

탐사단은 이날 오후 버스로 5시간을 달려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70%가 살고 있는 알마티에 도착했다. 8월 2~3일 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 대에서는 국제한민족재단 주최로 제18회 세계 한민족포럼이 열렸다. 국내외 동포와 해외의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한민족 공동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8월 2일 저녁 알마티 국립 고려극장은 모처럼 찾아온 모국 동포들을 위해 흥범도 장군 추모제와 고려인문화예술제를 열었다. 고려극장은 85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극단이자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한민족 공연단체다. 1932년 9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단돼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흥범도 장군은 고려극장이 1937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로 이전할 때 함께 끌려와 수위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고려극장은 그가 타계하기 전

해인 1942년 연극 '흥범도'를 본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했다. 이 작품은 2013년 흥범도 서거 70주기를 맞아 7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려졌다. 이날 고려인문화예술제에는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 계봉우 선생의 증손녀계 이리나 씨를 비롯한 독립유공자후손회원들도 참석했다. 고려극장 단원들은 북춤, 전통 무용, 오페라 아리아, 검무, 부채춤,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모든 일정을 마친 회상열차 탐사단은 8월 4일 귀국길에 올라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다음에는 비행기로 북한을 건너뛰지 않고 서울역에서부터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따라 곧바로 중앙아시아까지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숙제가 따리를 들고 있었다. 10년 단위로 크게 치러지는 고려인 강제이주 기념행사에서 당시의 기억을 지닌 경험자가 참석

1 고려극장 단원들이 '아리랑'으로 고려인문화예술제 파날레를 장식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2 알마티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 1층 로비에는 지난 85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패널을 설치해놓았다. 3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



고려인 디아스포라 통사(痛史) 6천500km 이동 과정에서 1만 명 넘게 사망



한민족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기록은 1864년 처음 등장한다. 착취와 기근을 피해온 유민이 대부분이었다가 한일합방 전후 국권을 되찾으려는 우국지사가 모여들어 항일독립운동의 요람이 됐다. 안중근·최재형·이범윤·이상설·이위중·이동휘·이동녕·홍범도 등이 연해주를 무대로 활동했다. 1920년대 들어 일제의 보복전과 러시아혁명의 여파로 불거진 내부 갈등 등으로 독립군 세력이 크게 위축됐으나 연해주 고려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 1930년대에는 20만 명을 헤아렸다. 스탈린은 1937년 8월 21일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그 옛날 유대인들의 강제 이산(離散)을 뜻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와 다를 없었다. 고려인과 외모를 분간하기 어려운 일본 간첩의 침투를 막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노동력이 부족한 중앙아시아를 개발하려 했다는 설이나 고려인의 군사조직화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주장 등이 엇갈린다. 강제이주에 앞서 고려인 지도자급 인사 2천500명을 간첩 혐의로 처형했다.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17만 명에서 20만 명이 왜 끌려가는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시베리아횡단열차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려 옮겨졌다. 한 달간 6천500km를 달리는 과정에서 1만1천~1만6천 명이 숨졌다. 도착한 뒤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질병·추위·굶주림 등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았다.

고려인들은 뿌리째 뽑혀 황무지에 내던져져도 맨손으로 토굴을 파고 논밭을 일구며 새 뿌리를 내렸다. 우즈베키스탄의 김병화를 비롯해 노동영웅이 201명이나 탄생했다. 자녀 교육에도 힘을 쏟아 2세대는 학자·예술가·의사·법률가·교사·엔지니어 등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1년의 소련 해체는 또다시 시련을 안겨주었다. 유일한 공용어인 러시아어만 써오다가 민족어를 공용어로 선포하자 공직 등에서 밀려났다. 이에 따라 상당수는 연해주 등 러시아로 재이주했으며 한국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18만2천957명, 러시아 15만9천419명, 카자흐스탄 10만5천400명, 키르기스스탄 1만7천617명, 우크라이나 1만2천177명, 벨라루스 1천265명, 투르크메니스탄 1천48명, 타지키스탄 634명 등이 살고 있다. 모국 귀환 동포는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대부분 허드렛일에 종사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포 4세부터는 외국인으로 분류돼 보육료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와 떨어져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주와 이산의 슬픈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해 증언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다. 강제이주의 역사가 책갈피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국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산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고려인들의 눈물이 마르기에는 80년의 세월이 모자란 것일까.

